

가자들이 추천하는 이달의 청소년 책

이번 달에는 <출판저널> 기자들이 직접 청소년 독자와 나누고 싶은 책들을 선정 했습니다. 매월 상당수의 새 책들을 대면하지만 '청소년을 위한'이라는 수식어 앞에선 그 어떤 이유로 책을 고를 때 보다 부담과 고민을 안았습니다. 그러나 감히 책과 독자의 눈높이를 맞추다고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책은 가까운 사람에게 권하고 싶듯 조카나 동생에게 권하고 싶은 도서를 뽑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철학소설 · 그냥 신나는 모험 이야기라고 생각하자

<유레카>

키를 요제프 두르벤 지음 | 김희상 옮김 | 유토피아 | 232쪽 | 값 9,000원

인터넷에서 만난 이상한 스승 '유레카'에 이끌려 철학하기에 돌입한 이리스와 엘레나 자매. 이들은 시공간을 초월한 의식의 여행 속에서 자연과학과 자연철학의 관점에서 의식과 물질, 문명과 미래의 다양한 철학적 주제를 접한다. 문제의 해결은 우주론, 상대성이론, 양자물리학 등 자연과학 이론으로 풀어낼 수 있다. 철학소설의 외형 안에서 서양철학사의 흐름과 주제를 충실히 따라가고 있다. 내용 안에 담겨진 술한 사상들과 철학자들의 이론에 압박을 느낄 필요가 없다. 소설처럼 쉽게 읽히지 않는 것은 선입견 때문일지도, 여유롭게 책과 더불어 생각하겠다는 마음으로 읽기를 권함.

먹고 마시는 것에도 역사와 철학이 있다?

<넥타르와 암브로시아>

클라우스 E. 뮐러 지음 | 조경수 옮김 | 인티쿠스 | 210쪽 | 값 12,000원

먹고 마시는 것, 일상적인 일이고 보니 실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좀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 맛집을 기웃길 뿐, 그곳에 담긴 깊은 의미를 성찰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역사는 음식과 식사 풍습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우리 주변의 많은 요소들이 여전히 역사에 바탕을 두며 일하는 식탁 예절에까지 침투해 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이 책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인류학적 고찰이, 신화의 영역에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인문학'과 '글쓰기'에 관심 있다면

<개념어 사전>

남경태 지음 | 들녘 | 452쪽 | 값 13,000원

'사전'이라는 이름 때문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 신문이나 책을 보면서 우리가 궁금해 했던 '개념어'를 저자의 표현처럼 "내 멋대로 그린 이미지"에 의해 풀어가는 책이다. 인문학의 여러 분야를 넘나들며 글쓰기 해운 저자답게 정형화된 모범 답안이 아닌 지적 경험에서 우러난 사유를 보여준다. 인문학적, 철학적인 관점에서 그가 설명하는 개념어를 통해 독창적이고 논리정연한 글쓰기에 도움을 주는 책이다. '인문학'과 '글쓰기'에 관심 있는 청소년이라면 이 책을 통해 '무엇'과 '어떻게'에 대한 만족할 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철학과 소설이 만났을 때

<알도와 떠도는 사원>

김용규 · 김성규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478쪽 | 값 13,000원

철학판타지 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선보이는 재미있는 소설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등 고대철학에서부터 논리학, 경험론, 합리론 등 서양철학 사상의 진수는 물론 인도철학 등 동양사상이 소설 스토리 안에 재미있게 녹아있다. 스릴 넘치는 모험과 철학과 사상 및 컴퓨터과학, 인지과학, 유전공학 등 첨단 지식이 어우러진 흥미로운 소설이다. 합리적 이성과 과학적 가치가 아닌, 인류 보편적 가치와 주제를 담보로 한 지혜와 지식만이 인류 역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진리를 선보인다.



현대 문학의 대가들과 함께 하는 '환상' 여행

《환상 동화》

프란츠 카프카 외 지음 | 김재혁 옮김 | 하늘연못 | 340쪽 | 10,000원

현대 독일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24인이 쓴 개성 있는 단편 소설 모음집이다. 매편의 이야기마다 작가의 변독이는 상상력과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소설집의 첫 문을 여는 프란츠 카프카의 〈법 앞에서〉는 '법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과 그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내의 얘기를 다루고 있다. 카프카 특유의 그로테스크함으로 '법과 인간의 문제'를 담아 긴 여운이 남는 작품이다. 그밖에도 릴케의 독특한 시적 변주, 게오르크 카이저의 시공을 넘나드는 환상성, 토마스 만의 은유와 익살을 통해 청소년들은 현대 문학의 대가들과 함께 '환상'의 세계로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이다.

다락방 불빛처럼 빛나는 135편의 이야기

《다락방의 불빛》

셸 실버스타인 지음 | 신형건 옮김 | 보물창고 | 276쪽 | 값 9,800원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작가들이 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의 작가 셸 실버스타인도 그런 작가 중 한 사람이다. 그의 대표작 《다락방의 불빛》에는 135편의 그림우화들이 담겨 있다. 이 책은 세대를 아우르는 뛰어난 포용력과 높은 작품성을 지녔다. 이 작품은 20년 전에 쓰인 작품이지만 감성을 자극하는 서정적인 내용들, 재치 넘치는 말, 현실에 대한 풍자와 해학까지 지금 읽어도 누구나 공감하는 책이다. 다락방의 불빛을 따라 그림우화와 함께 하는 유쾌한 철학적 사유에 빠져보자.

책으로 만나는 또래 토론의 장

《주제와 변주》

인디고서원 엮음 | 궁리 | 585쪽 | 값 18,000원

청소년 인문학 서점 인디고 서원에서 '주제와 변주'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토론강좌 내용을 엮은 책이다. 자신이 읽고 싶은 책을 찾아 읽고 서로 토론하면서 발표와 논리의 기술, 철학적 사고를 터득하는 모임이다. 토론이 빛을 발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만나고 싶은 저자를 선정해 그들을 초청하고 자신들의 모임 안에서 생겨난 질문 또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점이다. 직접 참여할 수는 없어도 또래들의 생각과 명사들의 답변을 책으로 읽는 것은 색다른 즐거움을 전한다.

인생의 고비를 넘어

《내 안의 사막, 고비를 건너다》

라인홀트 메스너 지음 | 모명숙 옮김 | 황금나침반 | 259쪽 | 값 10,000원

"그런데 아빠가 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시몬이 물었다. "나는 해낼 거야. 너도 마찬가지고, 낙타 타는 게 겁나긴 하지만, 나는 열 시간 정도는 쉬지 않고 걸을 수 있거든." 우리 부자는 이제 처음으로 함께하는 탐험에 대해 꿈을 꾸었다. (본문 중에서)

등반가이자 모험가인 저자는 이순의 나이에 오랜 꿈이었던 고비사막을 횡단한다. 유목민의 천막집을 전전하고, 목동생활을 하는 유목민의 도움으로 텅 빈 고비사막을 걸어서 가로지른다. 땅은 한계에 도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모험의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고백하는 저자의 용기 넘치는 모험에 감동을 받는 책이다. **★**

정리 송보경 기자